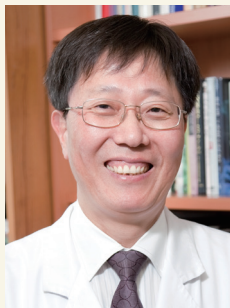


# 세계 최초의 개복수술 시도한 시골 의사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2년쯤 의학공부를 하고 1794년에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온 켄터키주의 시골 개업의사 이프레임 맥도웰이 46세인 네 아이의 어머니 제인 크로포드 환자를 왕진한 것은 1809

년 12월 13일이었다. 그녀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 맥도웰이 진찰한 결과 배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움직이는 거대한 종양이 만져졌고 자궁 내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이 병이 난소종양이며 상황이 매우 위중하지만 당시 의료기술로는 치료할 방도가 없다고 설명하고, 만약 환자가 던빌에 있는 진료소까지 혼자 올 수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한 후 발길을 돌렸다. 맥도웰은 환자가 조만간 위독해져서 아마도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용감한 여성은 인디언과 늑대들이 출몰하는 약 100km의 시골길을 혼자 말을 달려서 12월 17일 밤 던빌에 도착했다.

마취도 소독약도 없던 당시에 세계 최초의 개복수술이라는 역사적인 실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맥도웰은 마침 몇 달 전 필라델피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돌아온 조카 제임스와 함께 1주일 동안 준비를 갖춘 후 크리스마스이자 일요일인 25일 아침에 수술을 시작했다. 그 시간에 마을사람들은 산 사람의 배를 여는 무모한 시도에 극력 반대하며 모두 교회에 모여 있었다.

환자는 통증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나지막한 목소

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맥도웰이 메스로 복강을 열자 종양에 눌러있던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 종양이 너무 커서 그대로 들어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맥도웰은 종양 밑 부분을 실로 묶은 후 표면을 두 군데 절개하여 약 6.5kg의 점액성 내용물을 긁어내고 남은 부분을 자궁에서 분리 절단했다. 전체 종양의 무게는 거의 10kg이나 됐다. 맥도웰은 내장을 도로 집어넣고, 환자를 기울여 배 속에 고인 혈액을 쏟아낸 후 복벽을 봉합했다. 이즈음 환자의 노래가 멈추어서 놀라 살펴보니 잠시 기절했을 뿐이었다. 수술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예매가 끝나고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칼로 찌겠다는 악마'가 수술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는 목사의 선동에 이끌려 진료소로 쳐들어왔던 군중들은 환자의 배를 가르고 내부의 큰 혹을 떼어내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보안관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환자는 수술 후 5일째에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고, 25일째에는 혼자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후 인디애나주로 이사하여 78세까지 생존했다. 1932년 켄터키주 도로관 리국은 1809년에 그녀가 말을 타고 왕복했던, 그녀의 통나무집이 있던 그린카운티에서 던빌에 이르는 길을 '제인 토드 크로포드 웨이'로 명명했다.

이 증례를 포함하여 세 차례 난소종양 수술에 성공한 후 1817년에 발표한 맥도웰의 업적은 의학 불모지였던 미국이 거둔 가장 혁혁한 성과 중 하나였다. 영국왕립산부인과협회는 1830년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59세에 세상을 떠난 맥도웰을 기리는 뜻에서 던빌의 진료소 검자택의 목재로 만든 해머를 회의 진행에 쓰고 있다. ㉠